

## 열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년 4월 3일
담당부서	금천구의회 의회홍보팀
■ 사진 3 매 ■ 총 2 쪽	

## 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임기 마무리 속 안건 심의

- 조례안 7건 원안가결...고영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 현안 제기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 개회사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

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하며, 갈등 조정과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증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는 비록 제9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